

수채화·서양화·문인화·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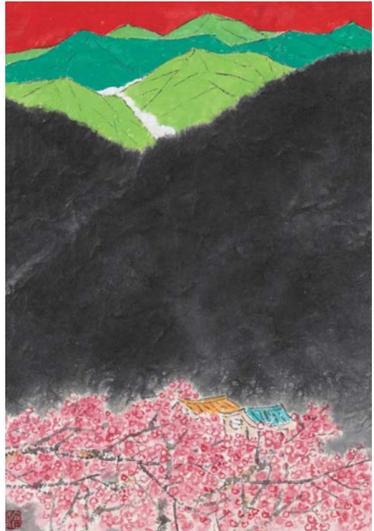
크로스로드서 만나다

예술의 거리에 지난해 문을 연 향담갤러리(관장 이성임)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크로스로드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수채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분야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4명의 중견 작가를 초대했다. 전시는 21일부터 7월11일까지 열린다.

예술의 거리 향담 갤러리 개관 1주년 기념
정우범·이부재·정광주·김일해 4인 초대전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40점 선 보여



정우범 작 '패랭이꽃'



이부재 작 '지리산'

이번에 초대된 작가는 정우범(수채화), 이부재(문인화), 정광주(서예), 김일해(서양화) 작가다. 이들 작가는 수십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특히 김일해 작가는 대구 출신이면서도 정우범·이부재 작가와 함께 서울 등에서 함께 초대전을 여는 등 오랜 기간 함께 격려하며 작업을 해왔다. 여기에 정광주 선생이 합류하면서 개성 강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1인당 8~10점씩 모두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 '크로스로드에서 만나다'는 "네 작가가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다가 한 지점, 사거리에서 조우하는 모습을 연상"하며 떠올랐다. 김일해 작가는 강렬한 색감의 맨드라미 연작을 전시한다. 영남대·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미술문화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또 뉴욕, 파리, 도쿄 등 국내에서 50회 이상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채화가 정우범 작가는 조선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으며 서울 선화랑 초대전, 대만 국립국부기념관 초대전, 워싱턴 갤러리 미셀 초대

전 등 국내외 유수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수채화 작품과 함께 아크릴로 작업한 작품도 선보인다. 금초 정광주 작가는 강한 필치가 인상적인 '광주, 아-예술이여 민주여!'와 단출하며서 힘이 살아 있는 '일월오악(日月五岳)'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정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추사서예상, 의재미술상, 송곡서예상 등도 받았다. 고암 이부재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푸른 숲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한마리의 새가 눈길을 끄는 '꿈'과 화사한 벚꽃, 먹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검은 산과 녹색 숲, 그리고 붉은 하늘이 어우러져 색의 향연을 선사하는 '지리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전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성임 관장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의미있는 전시를 열고 싶었는데 좋은 선생님들의 전시를 마련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초대 일시는 21일 오후 7시다. 문의 062-266-12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본모습 찾았다

20년 보수 작업 마무리...12월부터 일반 공개



1910년도 당시 미륵사지 석탑(위)과 복원을 마친 미륵사지석탑(오른쪽).



국내 가장 오래되고 큰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20년의 수리 작업을 마치고 새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보수는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 기간 체계적인 수리를 진행한 사례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일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수리 작업을 마친 석탑을 공개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향가 '서동요' 주인공이자 백제 후기 무왕(재위 600-641) 시대에 지은 백제 건축물이다. 석재 2800여 개를 짜맞춘 형태로 석탑 양식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또한 원래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문화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곳은 지난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인 문제점이 드러나 아쉽게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수리를 결정했다. 석탑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본래 모습을 유지했지만 이후 일부가 붕괴돼, 일제 강점기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시멘트 랩질을 해 보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익산 미륵사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가람배치 특징이 밝혀졌다. 17세기경에 폐사되었으며 현재는 파손된 서탑과 당간지주 등 일부만 남아 있다. 한편 2009년 석탑 해체 과정 중 1층 내부의 첫 번째 신주석에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돼 학계, 불교계 등의 관심이 집중된 적 있다. 이를 통해 석탑 건립 시기(639년), 미륵사 창건의 배경과 발원지 등이 밝혀졌다. 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2월부터 미륵사지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수리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어머니의 농경 예술 이야기'

전남여성플라자 20일~7월 13일
농부화가 김순복전...시화집 출간도

새벽 다섯시이면 일어나 농사일을 하는 김순복(61)씨에게는 '농부화가'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그림을 그린 건 4년 전부터다. "언젠가 꼭 그림을 그리고 싶다"던 엄마의 말을 흘려 듣지 않은 딸에게서 72색 파버카스텔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선물받고 나서였다. 일을 마치고 밤이면 그림을 그렸다. 그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녀가 살고 있는 해남군 현산면 동네 사람들이다. 모내기를 하는 모습, 대파를 뽑는 모습, 경운기 타고 밭 가는 모습 등 농사일은 모두 그림의 소재가 됐다. 일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 서울 시민청 갤러리와 광주 김빛사에서 초대전을 가졌던 그녀가 이번에는 (재)전남여성플라자가 진행하는 '전라도 천년에서

여성의 활동을 찾다' 기획전시에도 초청돼 작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4년 동안 그렸던 그림과 시를 모아 시화집 '농촌 어머니의 마음'(황금알출판사)까지 출간해 겹경사를 맞았다. 오는 7월 13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열리는 전시는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어머니의 농경 예술이야기'가 타이틀로 그녀의 농촌 일상 그림과 시가 담긴 작품 96점이 전시중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농촌 어머니의 마음' 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김씨의 그림과 시에서는 남도의 자연적 미감과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녀는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었던 농촌의 농경문화를 남도어머니의 시선으로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구마를 캐는 여인들', '모판 든 여인' 등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이번엔 출간된 시화집에는 '씨앗부지', '시골 노부부', '양파모', '콩의 반란' 등 60여편의 시와 그림이 실렸다. 문의 061-260-732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예술단 이사장에 광주 출신 유희성씨

서울예술단 이사장에 유희성(59·사진) 씨를 임명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6월 19일까지 3년이다. 광주 출신인 유 신임 이사장은 1982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광주시립극단 초기 단원이었으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예술단에서 20년간 배우로 활동했다. 뮤지컬 '명성왕후'의 고종 역으로 제4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배우,

연출가, 교육자 등으로 공연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원장 등을 거쳐 최근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을 맡았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